

# 税金으로 책 사는 나라

李璟薰 본지 편집위원

국민의 지적소산인 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으로 그때그때 어떤 기준에서 일정량을 사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정부의 예산항목을 보면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등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정보화사회'라고 하면서, 국가사회개발에 직결되는 지식·정보산업발전과 정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체인 도서관개발비는 너무나 근소한 실정에 머물러 있다.

한 예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도서관 체제확립 및 운영활성화방안 연구」(1987)에 의하면 국립·국회·공공·대학·학교도서관의 예산 총액이 고작 520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을

4천만 국민이 부담한다면 1인당 1,300원에 불과하다.

모든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모름지기 정치한다는 사람이면 그들의 도서관정책의 깊은 뜻을 배워와야 할 것이다.

흔히 독서의 저해요인으로서 '정신문화의 황폐' '독서환경의 불비' '잘못된 교육제도' 등이 지적되는데, 이것을 개선하려는 정책당국자들의 단호한 의지는 미약하다.

얼마전, 최근에 정년퇴임한 어느 고등학교 교장을 만났다. 그는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달리 노력했던 사람이다. 자연히 학교도서관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오늘의 학교도서관 현상은 문자 그대로 황폐화 일로를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야 할 학교도서관의 실정이 이렇 바에야 어찌 주체성 있는 교육의 정상화를 기할 것인가. 한국도서관협회 통계에 의하더라도, 84년에 전국 5,374개 관이던 학교도서관이 86년도에는 4,758개로 도리어 616개 관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학교도서관 예산 49억원을 초중고교생 약 1천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490원이란 근소한 액수이다.

청소년교육 정상화의 첩경으로서의 '학교도서관' 대책은 시급히 손을 써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시책이 고른 책을 학교측에서 넉넉히 사주어 교육에 이용하면 그것이 창작풍토를 일구는 일을 부추기게 되고, 나아가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업소인 저급한 만화 및 출판물 대본소를 몰아내는 2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쓴다면 누가 아깝다 할 것인가.

# 출판저널

통권 제 37호/1989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亨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吳愛里 南眞祐 金芝媛  
디자인—尹貞子

포토디렉터—朱明德  
사진—全惠敬

업무·광고—梁承杓 崔兌源  
洪先基 金旻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제)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식

출판저널—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寧珉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容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沈善 | 徐淵昊     |
| 成完慶 | 宋相庸 | 愼鍾廈 | 安秉永     |
| 安輝潯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康洙 | 李康淑 | 李璫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稷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映 | 鄭元植 | 鄭鎮弘     |
| 鄭丙圭 | 曹大鉉 | 趙玉羅 | 羅德奎     |
| 車河淳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 崔鐘庫 | 韓相震 | 韓勝憲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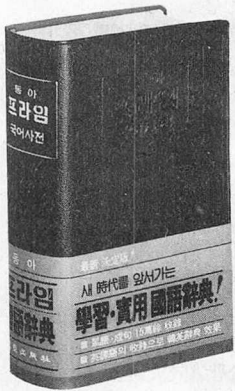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지「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제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3월31일까지 「출판저널」 독자퀴즈 담당자 앞(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39호(4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동아출판사에서 펴낸 「동아프라임국어사전」(정가 85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프라임 國語辭典 동아출판사刊

1. 장미
2. 백합
3. 동백꽃

### 문제2

“인도를 잃을지언정 셰익스피어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던 영국의 사상가요 역사가는 누구인가.

1. 칼라일
2. 토인비
3. H.G. 웰즈

### 문제3

세계최초의 추리소설은 「모르그街的 살인」이다. 추리문학의 창시자로 꼽히고 있는 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는 「아나벨리」 등의 시들을 남긴 미국 보스턴 태생의 시인이다.

1. 코난 도일
2. 에드거 알렌 포
3. 모리스 르블랑

### 문제4

세계에서 가장 긴 소설 「善意的 사람들」은 무려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을 쓴 작가 줄로맹(Jules Romains, 1885~1972)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1. 스위스
2. 캐나다
3. 프랑스

출제 · 홍윤기

### 제35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5호(2월5일자) 퍼즐에 응답해 온 엽서는 모두 146통, 이중 정답은 113통이 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 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 1. ②고대로마

### 2. ①저장한다

‘makhzan’은 ‘저장한다’는 뜻을 지닌 아랍어로서, 곡식이나 보급품 등을 비축해두는 창고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힌트로 제시한 프랑스어 ‘magasin’ 역시 ‘창고’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3. ②大唐西域記

玄奘은 27세의 나이에 唐나라를 떠나 온갖 고초를 극복하면서 서역과 인도를 답사하고 불경을 연구했던 학승이다. 그는 「大唐西域記」뿐만 아니라 「大般若經」 6백권을 비롯한 방대한 분량의 불전 번역서를 남겼다.

「往五天竺國傳」은 신라의 승려 혜초가 10여년 동안 인도 5國과 인근 여러 나라를 순례한 뒤 그 행적을 적은 책이며, 「入唐求法巡禮行記」는 9세기경 일본의 고승인 圓仁의 당나라 불법수행 기행문이다.

### 4. ①「악학궤범」

9권3책으로 편찬된 이 책에는 고려가요 「동동(動動)」 등이 한글로 실려 있다.

### 당첨자

이재섭(서울 중랑구 면목3동 449-9 21/2)

김문철(서울 종로구 승인2동 206-1)

이영미(서울 양천구 신월4동 419-13 삼양연립 202호)

임선희(대구직할시 수성구 만촌1동 423-4)

허성일(부산시 서구 아미2동 126번지 3/4)